

#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첫 영업 개시! “눈물나게 힐링됐다” 디저트 싹싹 비운 어르신들에게 선사한 '특급 행복'!

2026. 5. 11.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드디어 문을 열고, 따스한 정성과 온기를 시골 어르신들과 나누며 몽클한 감동과 여운을 전했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8일(금) 공개된 1화는 영업 마지막 날의 '갈레트 데 루아' 깜짝 이벤트로 포문을 열었다. 밤이 숨겨진 빵을 찾은 어르신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고, 어르신의 즉석 노래가 한데 어우러진 장면은 마을 공동체와 깊이 교감해 온 출연진들의 진심을 보여주며 시작부터 몽클한 감동을 안겼다.

이어 공개된 첫 만남에서는 김희애, 차승원, 김선호, 이기택 네 사람의 특별한 시작이 그려졌다. 김희애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저트 카드’ 아이디어를 냈고, 차승원은 낯선 프랑스 베이킹에 긴장하면서도 연습을 거듭하며 ‘제빵왕’으로 성장해갔다. 라테 아트까지 마스터하며 다정한 바리스타로 변신한 김선호, 아침 식사를 책임지며 ‘조식탁’ 별명을 얻은 막내 이기택의 활약도 빛났다.

전북 고창 방장산 아래, 오랫동안 불 꺼져 있던 마을 슈퍼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봉주르빵집’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공간이 주는 위로를 실감케 했다. 카페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어르신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해방감을 안겼다.

첫 영업을 앞두고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차승원과 이기택이 이끄는 주방은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베이킹의 세계 속에서 치열한 시간을 이어갔고, 김희애와 김선호는 어르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세심한 서비스와 준비로 공간을 채워갔다. 여기에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합류한 세븐틴 디노는 김선호의 밀착 과외 아래 단숨에 ‘극강의 멀티태스커’로 거듭나며 특별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드디어 문을 연 <봉주르빵집>, 돋보기를 들고 서툴게 주문을 건네는 어르신들의 첫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미소를 번지게 했다. 특히 생소한 ‘크림 브뤼레’ 앞에서 망설이던 어르신들이 한 입의 달콤함에 무장해제되어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장면은 낯선 맛이 선사하는 의외의 기쁨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고향의 풍경을 구워낸 듯한 ‘청보리 밭 타르트’에 담긴 정성은 어르신들의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르신들이었다. 아껴둔 빵 한 조각을 지인과 나누기 위해 포장하고, “이 이야기로 일주일엔 살겠다”며 아이처럼 웃는 모습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경험의 가치를 전했다. 특히 “눈물 나게 힐링 됐다”는 한 어르신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깊은 여운을 남겼다.

첫 공개와 동시에 기분 좋은 미소와 행복을 전파하고 있는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